

# 소비자 10명 중 8명 “‘착한소비’에 공감”

윤리적 경영 실천 기업 제품 비싸더라도 구매 의향 있어 68.9%

소비활동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트렌드 속에 남을 돋는 이른바 ‘착한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고 있으나 절차 실제 도움을 받는 수혜자가 있을 지에 대한 의심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이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59세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착한 소비’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10명 중 9명 (90.8%)은 자신의 소비가 남을 돋는데 쓰이는 것은 뿐만 아니라 고 바라봤으며,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행복하다는데 84.8%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업의 제품을 소비하려는 소비태도도 더욱 뚜렷해졌다. 대부분(83%) 요즘 소비자들은 소비를 할 때 기업의 이미지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는데 동의했으며, 윤리적 경영을 실천하려는 기업의 제품이라면 조금 비싸더라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는 소비자가 68.9%에 이르렀다.

소비자의 절반 이상이 요즘 소비자들은 가격보다 가치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고(56.4%), 최근 소비트렌드의 핵심은 진정성(53.3%)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소비과정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요해 보였다.

전반적으로 착한 소비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는 소비자가 많았으나, 우려하는 시각도 상당했다.

가장 큰 의구심은 자신의 착한 소비활동이 누구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소비자의 67.5%가 여전히 착한 소비활동으로 도움을 받는 수혜자가 있을지 의심이 되다고 응답한 것으로 특히 젊은 층에서 이런 의심(20대 73.4%, 30대 75.4%, 40대 63.8%, 50대 57.2%)이 많았다. 실제 도움을 받는지에 대한 의심으로 착한 소비활동 자체를 주저하게 된 경향이 있다는 소비자도 10명 중 8명(80.6%)에 이르렀다.

착한 소비활동에 참여한 경험 이 없다고 밝힌 소비자들은 동참

해볼 기회가 없었다(50%, 중복응답)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다만 2015년 조사(58.6%)에 비해서는 기회가 부족해서 참여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다소 줄어들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믿음이 잘 가지 않는다’는 답변도 45.5%에 달했다.

그만큼 소비자가 행하는 착한 소비가 실제 누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기가 쉽지 않다는 인식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다(41.6%)는 점도 착한 소비활동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 중 하나였으며, 허울뿐인 것 같고(28.7%), 대상 기업과 단체를 믿을 수 없다(24.8%)는 불신도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이 중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서 착한 소비를 하기 힘들다는 의견은 주로 젊은 세대(20대 43.8%, 30대 50.9%, 40대 37.8%, 50대 29.5%)에서 많이 나왔다.

뉴시스



광주신세계, 패딩 무스너클 팝업스토어 오픈  
날씨가 제법 쌀쌀해 지기 시작한 요즈음 (주)광주신세계(대표이사 임훈) 3층에서 캐나다 프리미엄 패딩 ‘무스너클’이 팝업스토어를 12월 31일까지 두달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무스너클은 캐나다 구스의 무스너클 미스틱패딩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 “쌀쌀해진 날씨에”…패션업계, 환절기 채비 나섰다

발열기능 이너웨어부터 방풍 효과 탁월 재킷까지

이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지자 패션업계가 본격적으로 환절기 용 상품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발열 기능이 더해진 이너웨어부터 방풍 효과가 타월한 재킷까지 그 종류도 다양한 모습이다.

14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들은 일교차가 커짐에 따라 발열 기능이 강조된 패션 상품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실제 온라인 쇼핑몰 G9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체온 유지를 돋는 스카프, 양말 등의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6% 127% 증가했다.

패션 브랜드 BYCO도 기능성 발열 웨어 보디히트 반팔 상품을 통해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고 있다. 보디히트는 광발열 기능이 있는 슬라 터치 원시를 적용해 신체나 대기 중 적외선을 열에너지로 비꿔 보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다. 특히 반팔 상품은 일교차가 커진 지금, 편안한 착용감으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아웃도어 브랜드들도 가을에는 가볍게 걸치고 한겨울엔 외투 사이에 껴입을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은 경량 다운 재킷을 다수 선보이고 있다.

블랙야크는 간절기기에 착용하기 좋은 ‘AWC 패딩 시리즈’를 출시했다. 몸에서 나오는 수증기를 흡습성이 높은 레이온 섬유가 흡착해 스스로 열을 내도록 만들었다. 기모 안감으로 1.5배 높은 보온성을 갖춘 히트텍 액스트라 월’, 두께감 있는 특수 기모를 적용한 ‘히트텍 울트라 월’ 등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해 날씨에 따라 선택해 입을 수 있다.



를 높였다. 남성용 제품은 하단 여밈 부분에 스토퍼를 사용해 아래로 들어오는 바람을 한번 더 막아준다. 이와 관련 한 패션업계 관계자는 “일교차가 클수록 면역력이 약해져 체온 조절 등 건강 관리에 특히 신경을 일이 많이진다”며 “이침 저녁 쌀쌀한 날씨로 인해 발열 기능을 겸비한 반팔 제품의 인기가 증가하고 있으며, 날씨가 추워질수록 긴팔 제품의 인기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우체국, 부모님 생활비 통장 ‘생활든든 통장’ 출시

전남지방우정청(청장 김성칠)은 시니어 전용상품으로 기초연금, 급여, 연금 수령 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우체국 생활든든 통장’을 16일 출시한다.

‘우체국 생활든든 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장점에 정기예금 못지 않은 이자와 혜택을 더한 예금 상품으로, 만50세 이상 고객이면 전

금 시 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 등 각종 금융 수수료가 월 5회 면제되고, 우체국 택배요금 3천 원 할인 쿠폰을 네 회 제공한다.

시력저하 등으로 불편함을 겪는 고객을 위한 큰글씨 통장 서비스를 비롯해 이 통장에서 우체국 보험료 또는 공과금을자동이체 하면 매월 이체 금액의 5%(최대 1,000원)를

기념하여 기업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총 1,110명에게 실내 헬스자전거, 흥삼상품권, 문화상품권을 제공하는 경품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 정진용 예금사업단장은 “기초연금, 급여, 용돈 등을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받는 50세 이상 고객이라면 금리우대와 수수료 면제, 보험료·공과금 캐시백, 택배요금 할인 등의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우체국 생활든든 통장’을 신규로 개설하거나 전환하시는 것이 좋다”면서 “앞으로 우체국을 찾으시는 시니어 고객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라고 말했다.

번호 Lotto 제 776회차 당첨결과 (2017년 10월 14일 추첨)

8 9 18 21 28 40 + 20

순위	당첨개인수	1인당 당첨금액	당첨기준
1등	7	2,557,579.393원	당첨번호 6개 숫자 일치
2등	50	59,676.853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보너스 숫자일치
3등	2,001	1,491,176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
4등	102,081	50,000원	당첨번호 4개 숫자 일치
5등	1,687,650	5,000원	당첨번호 3개 숫자 일치

당첨금 지급 기한: 지금까지 일로부터 1년(휴일인 경우 연장일)

**목포의 자존심!**  
**목포해상케이블카**

목포해상케이블카 (주)